

‘새 얼굴 맹활약’ 4위 반등…상승세 타고 총공세로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드디어 도약의 시동을 걸었다. 주춤하던 전반기를 지나며, 이제는 상위권을 가장 강하게 위협하는 팀으로 떠올랐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KIA는 확실히 달라졌다.

23일 현재 KIA는 시즌 성적 38승 33패 2무로 리그 4위. 불과 일주일 전 7위였던 팀이 3계단 경충 뛰어올랐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전력 공백 속에서도 반전의 동력은 거셌다.

지난주 kt와 SSG를 상대로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최다인 6연승을 달성했다. 상승세를 타자 상위권과의 격차도 빠르게 가시권으로 좁혀졌다.

1위 한화와는 4.5게임, 2위 LG와는 3.5경

●프로야구 팀별 순위 (23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43	29	1	0.597	0
2	LG	42	30	2	0.583	1
3	롯데	41	31	3	0.569	2
4	KIA	38	33	2	0.535	4.5
5	삼성	38	35	1	0.521	5.5
6	SSG	36	34	3	0.514	6
7	kt	37	35	3	0.514	6
8	NC	32	35	4	0.478	8.5
9	두산	29	42	3	0.408	13.5
10	키움	21	53	2	0.284	23

시즌 최다 6연승…중위권 굳히고, 선두권 호시탐탐 서울 원정 6연전…탄탄한 투·타의 힘, 대도약 시험대

기, 3위 롯데와는 25경기차.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5-7위 팀들과의 격차도 최대 15경기에 불과해 연패시에는 하위권까지 추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서울 원정 6연전도 중요한 고비다.

KIA는 24일부터 리그 최하위 키움과 고척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약제이긴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5승 3패 1무로 앞서 있지만, 일방적 우위라 보기엔 애매하다. 특히 25일엔 키움의 새 대체 외국인 투수 라클란 웰스(28·호주)가 선발로 예고돼 있다.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를 두루 던지는 좌완으로 안정된 제구와 이닝 소화 능력이 강점이다. 데뷔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KIA 입장에서 예측불가 변수다.

이후 주말 3연전은 잠실에서 2위 LG와 맞붙는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밀리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다. LG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로 주춤하며, 공수 양면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세를 탄 KIA에선 이 시리즈가 우위를 점하고 승자를 잡힐 절호의 기회다. 28일 예정된 LG 선발 송승기(신인왕 후보)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시리즈 전체 흐름을 가를 수 있다.

변수는 날씨다. 장마의 영향으로 경기 일정 자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흐름이 좋은 팀 입장에서선 하늘조차 원망스러울 수 있다.

특히, 지난주 KIA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한 팀이다.

버티기에 그치려던 전반기, 팀은 오히려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백업 자원들이 있었다. 함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연일 승부처를 흔들었다.

김석환과 박민은 경기 후반 홈런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창진은 대타 결승타로 기대에 부응했다.

수비에선 결정적인 순간 김호령과 황대인의 보살이 경기 분위기를 바꿨다. 이들의 한 방, 한 송구 없었다면 6연승도 없었다.

불펜에서도 새 얼굴들이 힘을 보탤다. 성영탁과 이호민이 그 주인공.

이들은 필승조의 부담을 나눠 가진 ‘실전 카드’로 떠오르며 마운드 운용에 숨통을 틔웠다.

주전들도 이에 질세라 힘을 냈다.

최형우·위즈덤·오선우는 중심타선에서 제 몫을 다하며, 6월 팀 홈런 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다.

최원준은 주간 타율 0.474, 리그 3위를 기록했고, 박찬호도 득점권에서 5할 타율로 공격



성영탁

의 활기를 더했다.

이 같은 주전과 백업의 조화 속에 지난주 팀 타율은 0.296, 리그 2위다.

하지만 진짜 힘은 마운드다. KIA는 주간 평균자책점 2.68로 리그 1위.

외국인 원투펀치와 김도현이 중심을 잡았고, 양현종·윤영철도 페이스를 되찾으며 뒤를 받쳤다.

다만, 불펜 필승조는 잦은 등판으로 피로



이호민

〈KIA 타이거즈 제공〉

누적이 우려된다.

아직 후반기까지 긴 레이스가 남아 있다. 경기력 유지를 위해 이들의 과부하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KIA는 이번 LG전 3연전을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원정 9연전을 마무리한다. 고비마다 집중력을 보여준 호랑이 군단.

서울 원정의 끝자락,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홍철 기자

KIA 김도영·박찬호·최형우 ‘올스타 베스트 12’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에 세 명의 선수를 배출했다.

3루수 김도영과 유격수 박찬호는 2년 연속 나눔 올스타 내야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최고령 올스타 MVP의 주인공 최형우는 지명 타자 부문에서 0.27점 차 극적 승부 끝에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올스타 베스트12는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선정됐다.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박찬호는 유격수 부문에서 팬과 선수단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베스트12에 포함됐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며 올스타전 단골 스타로 도약하고 있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최형우가 총점 0.27점 차이로 한화 문현빈을 제치고 전 포지션에서 가장 근소한 격차로 베스트12에 포함됐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최고령 MVP를 수상한 그는, 올 시즌도 변함없는 클래스를 인정받



3루수 부문 김도영



유격수 부문 박찬호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

으며 2년 연속 올스타전 출전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올스타 베스트12 투표에서는 롯데와 삼성의 강세가 돋보였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롯데가 6명의 베스트12 선수를 배출하며 절반을 차지했고, 삼성이 5명, SSG가 1명의 선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눔 올스

타에서는 한화가 4명, KIA·LG 각 3명, NC가 2명의 선수를 배출했다.

한편,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박진만 감독, 나눔 올스타 이범호 감독)은 각 팀 13명씩, 총 26명의 추천선수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200m 최강자 고승환 ‘20초49’→‘20초45’ 한국 기록에 0.05초차…오늘 대기록 갱신

한국 육상 남자 200m 현역 최강 고승환(광주 시청·사진)이 자신의 최고 기록을 0.04초 단축하며 한국 기록에 0.05초 차로 다가섰다.

고승환은 23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선에서 20초45에 달려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20초45는 지난해 6월28일 전국선수권에서 작성한 20초49를 0.04초 당긴 고승환의 최고 기록이다.



광주광역시청

남자 200m 한국 기록은 박태건이 2018년 6월에 세운 20초40이다.

장재근 전 인천선수촌장은 1985년 9월 작성한 20초41로, 한국 역대 2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 3위 기록을 찍은 고승환은 24일 열리는 결선에서 한국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향은(왼쪽)이 지난 22일 열린 2025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상대로 찌르기 공격을 하고 있다. 〈국제펜싱연맹 제공〉

전남도청 김향은, 아시아펜싱선수권 첫 메달

여자 에페 단체전 ‘銀 합작’

전남도청 펜싱팀 김향은이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개인 첫 메달을 획득했다.

김향은은 지난 17-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5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울산시청), 임태희(계룡시청)와 팀을 이뤄 값진 은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여자 펜싱 대표팀은 16강에서 태국을 45

대2로, 8강에서 인도를 45대28로, 준결승에서는 일본을 45대27로 완파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는 아시아 최강 중국을 상대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던 대표팀은 막판 분위기를 내주며 38-41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박희종 기자

광주FC 변준수, 생애 첫 A대표팀 발탁

내달 동아시아컵 엔트리 합류 “광주 대표 좋은 모습 보여줄 것”

프로축구 광주FC의 ‘철벽’ 변준수가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7월7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치러지는 동아시아컵에 출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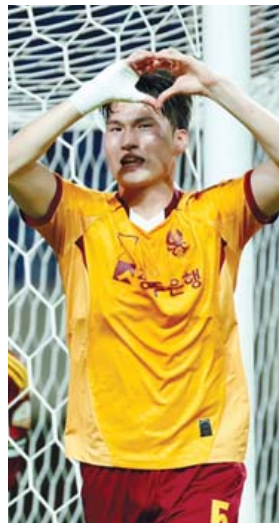
변준수는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준수는 올 시즌 K리그1 17경기에 출전해 부동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공격 포인트(1골 2도움)까지 기록해 공격 본능까지 뽐내고 있다.

또한, ACL에서도 9경기에 출전해 팀이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8강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회 이후 AFC에서 선정된 ‘Future Stars of the Season’ 최종 10인으로 뽑히며 잠재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변준수는 현재 리그에서 클리어링 391(101개), 공중 경합 승리 1091(67개) 등에 오르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패스 횟수 13위(788개), 전방패스 횟수 591(363개) 등 빌드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오호 8시 중국,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24분 일본(이상 용인미르스타디움)과 차례로 맞붙는다. /박희종 기자

변준수는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며 “광주FC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좋은 모습 보여 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변준수가 포함된 대한민국 대표팀은 7월7일